글로벌 주식시장 변화와 전망

2022.1.20

미 증시, 금리 안정 불구 확신 부족 여파로 부진

서상영 sangyoung.seo@miraeasset.com

미 증시 동향

- 미 증시는 실적 호전과 최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출발하기도 했으나, 미 10년물 국채금리가 1.9%를 넘어서자 매물 출회되며 하락 전환. 그러나 미 국채 금리가 하락 전환하는 등 되돌림이 유입되자 재차 상승 전환하는 등 변화를 보임. 다만, 바이든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앞두고 지정학적 불안, 공격적인 연준 우려로 주식시장 상승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가운데 매물 출회되며 낙폭 확대(다우 -0.96%, 나스닥 -1.15%, S&P500 -0.97%, 러셀2000 -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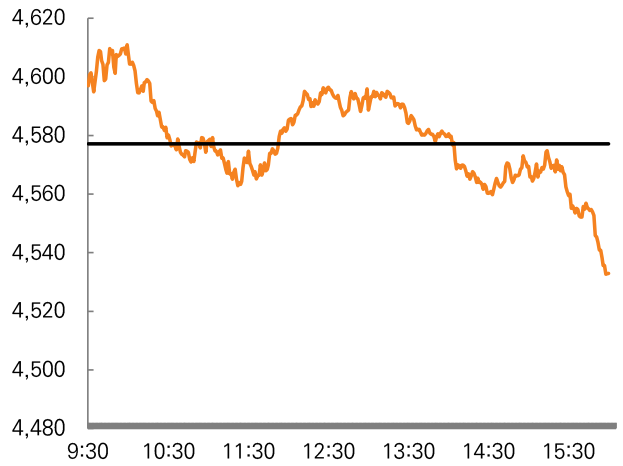
특이 종목

- 모건스탠리(+1.83%)는 여타 관련 종목과 달리 강력한 트레이딩 거래 수익과 비용 억제를 기반으로 견고한 실적을 발표하자 상승. P&G(+3.36%)는 견고한 실적을 발표하고 올해 전망을 상향 조정하자 강세. 주택 건설업체 레나(-4.38%), KB홈(-3.94%), DR호튼(-3.31%)은 인플레와 금리 상승을 이유로 투자의견을 하향 조정하자 하락. 포드(-7.92%)는 리비안(-5.14%) 투자로 큰 폭의 이익을 얻었다고 발표 했으나, 이는 일회성 비용이라는 점, 그리고 전일 도요타(-4.97%)가 칩 부족 영향으로 하락한 점이 부담을 주며 하락. GM(-4.34%), 테슬라(-3.38%)도 하락.

한국 증시 전망

- MSCI 한국 지수 ETF는 1.12% MSCI 신흥 지수 ETF는 0.43%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89.02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3원 하락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33% 상승. KOSPI는 0.3% 내외 상승 출발 예상
- 미 금융시장에서 국제유가 상승폭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채 금리가 채권 입찰과 그에 따른 되돌림이 유입되며 장 중 안정을 찾아간 점은 한국 증시에 긍정적. 특히 주식시장에서 실적 호전을 발표한 기업들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는 등 시장의 화두가 실적에 주목하기 시작한 점도 우호적. 다음주 본격화되는 미국 대형 기술주와 한국 대형주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가 높기 때문. 실제 다음주 발표되는 개별 종목들의 실적 추정치는 견고할 것으로 예상. 그러나 여전히 높은 인플레와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에 대한 우려가 높아 주식시장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 반등이 뚜렷하게 나올 가능성은 제한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Global Indices

지수등락률	Close	D-1(%)	지수등락률	Close	D-1(%)
KOSPI	2,842.28	-0.77	상해종합	3,558.18	-0.33
KOSDAQ	933.90	-1.06	홍콩항셍	24,127.85	+0.06
DOW	35,028.65	-0.96	베트남	1,442.79	+0.27
NASDAQ	14,340.25	-1.15	유로스톡스 50	4,268.28	+0.25
S&P 500	4,532.89	-0.97	영국	7,589.66	+0.35
캐나다	21,218.14	-0.27	독일	15,809.72	+0.24
일본	27,467.23	-2.80	프랑스	7,172.98	+0.55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변화 요인

상품시장 강세 불구 안정 찾은 금리의 영향

국제유가는 최근 아랍에미리트 지정학적 이슈가 부각되며 강세를 보인 가운데 오늘은 이라크에서 터키로 가는 송유관이 중단되면서 타이트한 공급 전망으로 상승세 지속. 여기에 세계에너지기구(IEA)가 2022년 수요 증가 전망치를 하루 20만 배럴 상향 조정하자 국제유가의 상승폭이 확대. IEA는 오미크론 우려가 있으나, 수요 회복에 제한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공급 감소와 수요 증가에 따른 국제유가의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음을 의미

여기에 러시아와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세계적인 곡창지역인 우크라이나 수확량 감소 가능성이 부각되자 밀 가격이 급등세를 이어갔고, 이 영향으로 옥수수와 대두 가격도 강세를 보이는 등 곡물가격 또한 상승폭을 확대. 이렇듯, 국제유가와 곡물가격 급등으로 높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지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한 때 1.9%를 넘어서는 등 금리 변화폭이 확대

여기에 캐나다 12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4.8% 상승해 1991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글로벌 각국의 높은 물가에 따른 긴축 기조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금리 상승 요인 중 하나

그러나, 미국 국채 금리는 최근 상승에 따른 되돌림이 유입되며 하락 전환에 성공. 더 나아가 20년물 국채 입찰에서 응찰률이 12개월 평균(2.36배)을 상회한 2.48배, 간접입찰도 12개월 평균(60.8%)을 상회한 66.2%를 기록하는 등 채권 수요가 강하게 유입된 점도 금리 하락 전환 요인

이렇듯 금리가 안정을 찾아가자 주식시장 또한 안정을 보였고, 특히 실적시즌임을 감안 관련 이슈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실적 호전 종목 중심으로 강세를 보인 점이 특징. 다음 주 본격화되는 대형 기술주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와 함께 FOMC를 앞두고 안정을 찾고 있음을 보여줌

다만, 바이든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앞두고 지정학적 불안, 공격적인 연준 우려로 주식 시장 상승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가운데 개별 종목 위주로 변화를 보이고 있어 당분간 종목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전망. 특히 우크라이나-러시아 긴장이 격화될 경우 국제유가, 곡물가격, 비료 가격등이 급등할 수 있어 높은 인플레이션 장기화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기 때문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실적 호전 종목 중심 강세

모건스탠리(+1.83%)는 여타 관련 종목과 달리 강력한 트레이딩 거래 수익과 비용 억제를 기반으로 견고한 실적을 발표하자 상승. BOA(+0.39%)는 대출 및 IB 부문 성장으로 견고한 실적을 발표하자 상승 출발 했으나, 비용 증가가 이어져 향후 실적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자 상승분을 일부 반납. 반면, US뱅코프(-7.75%)는 순이자 수입이 부진한 가운데 비용 증가 등으로 예상을 하회한 실적을 발표하자 급락. 스테이츠스트리트(-7.06%)도 서비스 수수료 인하 등으로 예상을 하회한 실적을 발표하자 약세. P&G(+3.36%)는 견고한 실적을 발표하고 올해 전망을 상향 조정하자 강세

MS(+0.22%)는 다음주 실적을 앞두고 모건스탠리가 견고한 마진을 예상한다고 발표하자 상승. 소파이(+13.68%)는 은행 지주 회사 되기 위한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은 후 급등. 금리 상승 영향으로 최근 하락하던 인튜이트(+1.40%), 어도비(+0.63%) 등은 반발 매수세 유입되며 상승. 반면, 주택 건설업체 레나(-4.38%), KB홈(-3.94%), DR호튼(-3.31%)은 인플레와 금리 상승을 이유로 투자의견을 하향 조정하자 하락. 포드(-7.92%)는 리비안(-5.14%) 투자로 큰 폭의 이익을 얻었다고 발표 했으나, 이는 일회성 비용이라는 점, 그리고 전일 도요타(-4.97%)가 칩 부족 영향으로 하락한 점이 부담을 주며 하락. GM(-4.34%), 테슬라(-3.38%)도 하락. ASML(-2.29%) 견고한 실적과 전망 상향에도 불구하고 대 중국 수출 라이선스 우려로 하락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XOP)	-1.10	대형 가치주 ETF (IVE)	-0.86
에너지섹터 ETF (OIH)	-1.62	중형 가치주 ETF (IWS)	-1.20
소매업체 ETF (XLY)	-1.80	소형 가치주 ETF (IWN)	-1.61
온라인소매 ETF (EBIZ)	-0.55	대형 성장주 ETF (VUG)	-0.94
금융섹터 ETF (XLF)	-1.68	중형 성장주 ETF (IWP)	-0.75
기술섹터 ETF (XLK)	-1.40	소형 성장주 ETF (IWO)	-1.54
소셜미디어 업체 ETF (SOCL)	+0.56	배당주 ETF (DVY)	-1.06
클라우드 ETF (CLOU)	+0.21	신흥국 고배당 ETF (DEM)	+1.50
미국 리츠 ETF (VNQ)	-1.35	신흥국 저변동성 ETF (EEMV)	+0.13
주택건설업체 ETF (XHB)	-1.85	미국 국채 ETF (IEF)	+0.24
바이오섹터 ETF (IBB)	-1.22	하이일드 ETF (JNK)	-0.09
헬스케어 ETF (XLV)	-0.41	물가연동채 ETF (TIP)	-0.21
곡물 ETF (DBA)	+1.70	미 투자등급회사채 ETF (LQD)	+0.16
반도체 ETF (SMH)	-2.76	모멘텀 ETF (MTUM)	-1.10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필수소비재	797.67	+0.68	-0.37	+2.21
유틸리티	350.19	+0.46	-0.60	-0.98
커뮤니케이션	255.96	-0.19	-2.68	-2.04
소재	549.33	-0.21	-2.22	+2.01
헬스케어	1,534.57	-0.44	-3.84	-3.70
에너지	490.72	-0.66	+1.76	+21.50
산업재	874.80	-1.10	-2.37	+2.96
부동산	296.80	-1.21	-3.13	-4.08
IT	2,798.88	-1.37	-5.13	-3.78
금융	652.56	-1.65	-5.23	+4.04
경기소비재	1,488.84	-1.81	-5.52	-2.02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한국
주식시장 전망

상승 출발 후 대형주 중심으로 강세 전망

MSCI 한국 지수 ETF는 1.12% MSCI 신흥 지수 ETF는 0.43%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89.02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3원 하락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33% 상승. KOSPI는 0.3% 내외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전일 한국 증시는 미 증시 하락에도 불구하고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하기도 했음. 그렇지만, 또다시 장중 국제유가로 인해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하자 미국 시간외 선물이 하락폭을 확대 했고, 이는 한국 증시에 대한 투자심리 위축 요인으로 작용하며 재차 하락하는 등 변화를 보임. 대체로 외국인은 현/선물 순매수 했으나, 개인과 기관의 매물이 시장 하락을 부추김

이런 가운데 미 금융시장에서 국제유가 상승폭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채 금리가 채권 입찰과 그에 따른 되돌림이 유입되며 장 중 안정을 찾아간 점은 한국 증시에 긍정적. 특히 주식시장에서 실적 호전을 발표한 기업들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는 등 시장의 화두가 실적에 주목하기 시작한 점도 우호적. 다음주 본격화되는 미국 대형 기술주와 한국 대형주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가 높기 때문. 실제 다음주 발표되는 개별 종목들의 실적 추정치는 견고할 것으로 예상

그러나 여전히 높은 인플레와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에 대한 우려가 높아 주식시장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 반등이 뚜렷하게 나올 가능성은 제한.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0.3% 내외 상승 출발 후 실적 호전이 기대되는 대형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더불어 최근 MLF 금리를 인하한 인민은행이 오늘 LPR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 중국의 경기 부양 의지도 전반적인 투자 심리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나 그 폭은 제한 될 것으로 예상

주요 경제지표
결과

견고한 미국 주택 착공/허가 건수

미국 12월 주택 착공 건수는 지난달 발표(167.8만 건)나 예상(165만 건)을 상회한 170.2만 건을 기록. 향후 전망을 알 수 있는 착공 허가 건수도 지난달 발표(171.7만 건)나 예상(171만 건)을 상회한 187.3만 건을 기록. 대체로 주택 구매자들이 금리 상승 이전 구매하려는 욕구가 높아진 가운데 원재료 가격 상승 이전 착공을 서두르려는 주택 건설 업체들에 의한 것으로 추정

미국 모기지 신청 건수는 지난주 대비 2.3% 증가했고, 구채 신청 건수도 지난주 대비 7.9% 급증. 그러나 재융자 신청 건수는 지난주 0.1% 감소에 이어 이번주에도 지난주 대비 3.1% 감소. 한편, 30년물 모기지 금리는 3.65%에서 3.77%로 상승세 지속

상품 및 FX시장 동향

금, 은 가격, 높은 인플레 및 지정학적 리스크로 강세

국제유가는 이라크에서 터키로 가는 송유관이 중단되면서 타이트한 공급 전망으로 상승세 지속. 여기에 세계에너지기구(IEA)가 2022년 수요 증가 전망치를 하루 20만 배럴 상향 조정하자 국제유가의 상승폭이 확대. IEA는 오미크론 우려가 있으나, 수요 회복에 제한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공급 감소, 수요 증가에 따른 국제유가의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음을 의미

달러화는 최근 높은 인플레이션과 그에 따른 연준의 매파적인 행보가 공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점이 부각되자 상승세를 이어왔는데 오늘은 씨티가 3월 FOMC에서 50bp 인상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발표하자 약세 전환. 더 나아가 최근 강세에 따른 되돌림과 국채 금리 하락 전환 또한 달러 약세 요인. 역외 위안화가 달러 대비 0.1%대 강세를 보인 가운데 여타 신흥국 환율도 달러 대비 강세를 보임

국채금리는 견고한 주택 지표 및 높은 인플레이션 우려로 10년물 기준 한 때 1.9%를 상회 하기도 했음. 그러나 20년물 국채 입찰에서 응찰률이 12개월 평균(2.36배)을 상회한 2.48배, 간접입찰도 12개월 평균(60.8%)을 상회한 66.2%를 기록하는 등 채권 수요가 강하게 유입되자 하락 전환하는 등 변화를 보임

금은 캐나다의 소비자 물가지수 급등에 따른 높은 인플레 우려 및 중동과 러시아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자 큰 폭으로 상승. 구리 및 비철금속은 중국 경기 부양책 기대 심리로 상승. 특히 니켈의 급등이 특징. 곡물은 러시아와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세계적인 곡창지역인 우크라이나 수확량 감소 가능성이 부각되자 밀 가격이 급등세를 이어갔고, 이 영향으로 옥수수와 대두 가격도 강세를 보이는 등 곡물가격 또한 상승폭을 확대.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82% 상승, 철근은 0.58% 하락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86.96	+1.79	+7.07	Dollar Index	95.565	-0.17	+0.68
브렌트유	88.44	+1.06	+4.45	EUR/USD	1.1344	+0.17	-0.86
천연가스	4.02	-6.12	-5.37	USD/JPY	114.29	-0.28	-0.31
금	1,843.20	+1.70	+1.36	GBP/USD	1.3616	+0.15	-0.61
은	24.23	+3.15	+6.22	USD/CHF	0.9156	-0.20	+0.14
알루미늄	3,050.50	+0.86	+2.28	AUD/USD	0.7213	+0.39	-0.97
전기동	9,841.50	+1.71	-2.21	USD/CAD	1.2506	-0.06	-0.02
아연	3,581.50	+0.41	+0.83	RUB/USD	0.0131	+1.08	-2.01
옥수수	610.50	+1.83	+1.58	USD/BRL	5.4461	-2.19	-1.34
밀	796.50	+3.58	+3.41	USD/CNH	6.3511	-0.15	-0.18
대두	1,391.25	+2.20	+0.34	USD/KRW	1,191.70	+0.13	+0.10
커피	244.45	+2.02	+3.12	USD/KRW NDF1M	1,189.02	-0.39	+0.16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1.852	-2.14	+10.93	스페인	0.683	+1.40	+5.80
한국	2.530	-0.90	+11.50	포르투칼	0.609	+1.40	+4.60
일본	0.144	+0.10	+1.30	그리스	1.712	+10.20	+18.80
독일	-0.012	+0.60	+4.70	이탈리아	1.337	+2.20	+7.50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